

협회소식/ 회원사동정

최우수상에 박영선양 우유글짓기 입상자시상

한국유가공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부가 후원한 제7회 어린이 우유장학금글짓기대회에서 박영선어린이(전북 순창군 시산국교 4년)의 '고마운 우유'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 우수상은 윤지영어린이(경기 오산성 산국교 3년)의 '우유 길들이기'와 문선미어린이(경북 영주 남산국교 6년)의 "나는 우유대장"이 선정됐다.

한국유가공협회는 12월9일 서초동 축산회관 강당에서 입상어린이, 학부모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차지한 박영선어린이에게는 농림수산부장관상장과 장학금 2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상장과 15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가작 5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상장과 장학금 10만원, 입선 10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상장과 장학금 5만원, 장려 30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상장과 2만원 상당의 부상을 각각 전달했다.

국민건강과 제2세 국민의 체위향상을 위한 필수식품인 우유및 유제품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실생활에서의 체험을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소비확대를 통한 낙농및 유가공업의 병진적

발전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작문실력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총 1천5백31명이 응모했다.

입상자 명단은 별표와 같다.

牛乳유통구조개선 심포지엄

한국유가공협회는 한국유가공연구회(회장 김현욱)와 공동으로 12월 6일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6층에서 "牛乳·乳製品의 流通構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계, 유업계등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시유의 유통현황(이흥구 한국 유가공협회 전무) △시유의 유통구조개선과 소비촉진방안(박중수 충남대농대교수) △우

유생산 유통의 단계별 가격형성의 韓日비교연구 (이철희 일본기후대 학교수) △물류관리의 필요성과 합리화방안(현명언 인터콘설링 대표)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뉴질랜드 유업계 시찰

全應璫 한국유가공협회 회장은 뉴질랜드 정부의 초청으로 국내 낙농 및 유가공업계 대표들과함께 10월13일부터 20일까지 뉴질랜드의 낙농 및 유가공업계를 시찰했다.



91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각종규정 개정·제정안 의결

韓國乳加工協會는 10월8일 협회회의실에서 91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직제



제7회 우수장학금결짓기대회 입상자

최우수(1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
박영선	4-1	전북 순창군 시산국교

우수(2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
윤지영	3-3	경기 오산시 성산국교
문선미	6-4	경북 영주시 남산국교

佳作(5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
임택순	6-5	서울 불광동 연신국교
김미진	3-1	제주 북제주 추자국교
성미영	5-1	경기 여주읍 여주국교
장호영	2-2	인천 갈산동 부평북국교
한윤아	6-4	부산 청룡동 청룡국교

입선(10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
이혜원	6-	충남 서천군 한산국교
김응환	5-2	경북 점촌시 점촌국교
신우혁	3-	경북 경주시 오릉국교
배운하	5-	전남 장흥읍 장흥국교
양혜영	6-10	전주 우아동 동신국교
한윤	5-2	충남 논산군 용남국교
조은미	6-1	경남 함안군 하림국교
이은영	4-3	경기 이천읍 설봉국교
소민재	6-4	대구 원대1가 달성국교
오수현	6-4	광주 화정동 영주국교

장려(30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
김혜옥	6-4	대구 읍내동 칠곡국교
문지선	6-4	인천 갈산동 부평북국교
정현자	5-2	충남 논산군 용남국교
김은정	6-1	강원 양구군 원당국교
이상수	6-7	충남 논산읍 부창국교
염미희	5-9	경기 안성읍 백성국교
백연희	6-1	대구 원대1가 달성국교
최자민	4-2	강원 평창군 횡계국교
심민영	4-	전북 김제군 공덕국교
송지연	6-	강원 홍천군 매산국교
이귀선	6-1	강원 인제군 방동국교
주현정	5-4	제주시 삼성국교
김기영	6-2	경남 함안군 칠원국교
권정은	5-1	충북 청원군 갈원국교
허일옥	5-3	전남 장흥읍 장흥국교
심재훈	4-1	강원 강릉 경포대국교
오소미	6-1	서울 상계 은곡국교
백혜현	6-3	강원 춘천시 중앙국교
변정현	6-7	강원 강릉시 옥천국교
주세희	4-	전남 진도군 지산국교
유연주	5-솔	경남 장승포 대우국교
최혜영	6-10	전주 금암1동 금암국교
전원배	5-1	충남 당진군 전대국교
이은혜	6-3	전주 우아동 동신국교
최귀정	5-1	경기 여주읍 여주국교
강복자	6-1	제주시 건입동 동국교
강수진	6-	충북 영동군 봉산국교
이주영	6-	경북 영풍군 장수국교
김영호	4-2	경남 김해군 대동국교
김장효	6-2	대구 대명4동 성명국교

대지 1천16평에 건폐율 49.6%, 연면적 7천6백평 규모의 이 건물에는 현재 商議빌딩에 세들어 있는 한국야쿠르트유업과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야쿠르트는 92년초 착공을 목표로 정립종합건축에 설계를 의뢰중이다.

매일유업, 새로운 이유식 맘마밀 1,2,3,4 개발시판

매일유업(대표 朴永鐸)은 최근 세계적인 이유식 메이커인 독일의 밀루파(Milupa)社와 기술 제휴로 이



유식 맘마밀 1,2,3,4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91년초 250억원을 들여 전자동 컴퓨터 시설을 갖춘 유아식 전문 생산공장을 준공하였으며 국제 특허공법인 그레놀(Granule)공법을 도입한 최첨단의 제조방법으로 맘마밀을 생산하고 있다.

아기 소화능력에 맞게 맘마밀1은 3개월령부터, 맘마밀2는 5개월령부터, 맘마밀3는 7개월령부터, 맘마밀4는 9개월령부터 2살까지 먹이는 종합 이유식이다.

규정,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규정등에 분산규정되어 미흡했던 인사관련규정을 보완, 새로운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상근회장 및 전무이사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위임전결규정, 처무규정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잠원동에 사옥 신축키로 야쿠르트, 92년초 착공

한국야쿠르트유업·주(대표 李銀鮮)은 서울 잠원동 28-10번지에 지하 6층, 지상11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키로 했다.

한가지 이유식만 먹일경우 아기가 편식하는 버릇이 생기고 쉽게 싫증을 느끼게 되는데 소화 가능한 월령이 되면 서로 바꿔 먹일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즉 3개월령의 아기는 맘마밀1을, 5개월령의 아기는 맘마밀 1,2를 함께 먹일수 있고, 7개월령의 아기는 1,2,3를 9개월령의 아기는 맘마밀 1,2,3,4를 함께 먹일수 있는 것이 맘마밀의 특징이다.

특히 맘마밀은 그래놀타입의 이유식으로 분말 제품의 문제점인 비중에 따라 내용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해소하였다. 기존 분말 이유식은 비중이 서로 다른 재료들이 단순히 섞여 있어 운송과정등에서 분리되지만 맘마밀은 새로운 공법으로 그래놀화하였기때문에 모든 영양소가 입자마다 골고루 들어 있고 물에 잘녹는 과학적인 이유식으로 방부제나 인공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그대로의 천연원료만을 사용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소비자 가격은 맘마밀 1,2,3,4가 모두 260g에 2천3백원.

빙그레 제품다양화 일환 '요플레홈사이즈' 등 개발

주·빙그레(대표 公泰根)은 최근 제품다양화의 일환으로 유제품인 '요플레홈사이즈, 1종과 '그라시아' '붕어 싸만코' 등 아이스크림 2종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요플레 홈사이즈'는 대용량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캡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어 냉장고에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그라시아'는 정통 카톤 아이스크림으로 신선한 원유와 생크림등 천연원료에 유지방 14%를 함유하고 있다. 또 겨울용 아이스크림인 '붕어 싸만코'는 제품모양을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붕어빵에서 착안하여 속에 부드러운 아이스밀크와 달콤한 통깨이 들어있어 세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가격은 요플레 홈사이즈가 2백50g에 8백원, 그라시아는 6백60ml에 2천원, 붕어싸만코는 1백20ml에 3백원.

생우유와 천연과일 혼합한 떠먹는 요구르트 또요 출시

(주)비락(대표 吳俊碩)은 최근 생우유와 천연과일을 혼합한 떠먹는 요구르트 「또요」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비락이 이번에 새로 개발, 시판에 나선 「또요」는 생우유와 천연과일을 혼합한 제품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함량이 높고 1병에 1천억 이상의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많이 들어 있어 건강증진에 효과가 뛰어나며 탈지분유를 첨가하지 않고도 고흡분함량을 증가시켜 타제품과는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비락은 1차로 딸기, 열대과일, 복숭아 등 세종류를 내놓았다.

**무설탕 요구르트 제품
두산, 요그린개발시판**

두산유업(대표 李鍾凡)은 최근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유산균이 함유된 비피더스 요구르트 「요그린」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비피더스 요구르트인 「요그린」은 그동안 의학회와 치과학회에서 충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었던 설탕대신에 과당과 비피더스 유산균의 활성을 돕는 올리고당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치아건강은 물론 장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무설탕 요구르트. 사과 파인애플등 신선한



천연과즙을 함유한 요그린은 어린이들의 뼈 발육에 도움을 주는 칼슘을 강화하고 무지고형분을 5%로 높여 영양이 풍부하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유제품 품질관리 워크샵

韓國乳加工協會는 지난 10월29일,

30양일간 낙산 임페리얼호텔에서 유업체 생산책임자를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한 유제품의 품질관리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92년도 식품위생관리지침 및 감시방향 (김태섭 보사부위생관리과장) △시장개방과 식품산업) 정도영 보사부식품유통과장) △카톤포장지와 품질관리(송태근 한국IP차장)란 주제발표와 함께 유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주)빙그레 대표이사에 公泰根전무를 승진선임

주·빙그레는 최근 公泰根대표이사 전무(사진)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선임하고 崔昌俊 曹喜在 崔顯華 俞炳月 李文鎔씨를 이사보로 승진 발령했다.



公부사장은 이에앞서 지난 11월 28일 한국화약그룹 종합연수원에서 열린 제25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전무로 선임됐다.

公부사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후 주·한국종합기계 상무 한국화약그룹 경영기획실 상무를 거쳐 89년 2월부터 빙그레 전무로 경영능력을 쌓아왔다.

매일乳業 유산균 발효유 EXPO공식공급업체 지정

매일유업(대표 朴永鐸)이 大田 EXPO 유산균발효유 공식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이에따라 자사제품인 「바이오거트」, 「바이오거트 드링크 요구르트」 65ml 요구르트등 유산균 발효유제품부문에서 대전 EXPO 휘장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또 엑스포 행사장내 권리품목(요구르트)의 공급권을 갖게되며 박람회장내의 영업시설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수 있게 됐다.

미국 허쉬사와 기술제휴 매일, 초콜렛 드링크 출시

매일유업(주)은 미국 Hershey사와 기술제휴로 코코아 분말을 함유한 국내 최초의 허쉬 초콜렛 드링크를 출시하였다.

국내에서 이미 시판되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허쉬 초콜렛이 드링크 음료로서 허쉬 초콜렛 드링크가 시판된 것으로 초콜렛 맛이 진하고 허끝에 오래남아 부드럽게 음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에서도 초콜렛 음료를 일반적 대중음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린이를 비롯한

여성, 성인들도 일상적인 음료로 즐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특히 비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로 볼때 허쉬 초콜렛은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 탈지 우유로 만들어 유지방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맛, 향, 당도, 농도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느낌을 주어 비만을 걱정하는 10~20대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품은 200ml 슬림팩(350원)과, 235ml 테트라팩(400원)등 두종류가 시판되고 있다.

종합소식

92년도수급 조절용 분유 3월이전 도입 공급 촉구

유가공업계는 92년도 수급조절용으로 수입키로 한 분유 5천톤에 대해 늦어도 3월이전에 도입, 유업체에

공급해 줄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2월6일 축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92 축산물 수급 및 시책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유업계 대표로 일반토론에 참가한 李漢東 매일 유업이사

는 농림수산부가 92년도 원유수급 전망 결과 부족분 5천톤(분유환산)을 수입분유로 충당기로 한데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효과는 반감된다고 들고 전량 3월까지의 수입, 비축하여 제때 공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이사는 또 축협중앙회가 충남 지역에 유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국내 유가공업계의 시설도 과잉상태인데다 집유기반도 없는 축협의 참여는 과당경쟁과 집유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여 오히려 유가공산업에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며 이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李이사는 또 축협의 산하조합인 서울우유, 부산우유등 생산자단체에서 이미 유가공업에 진출해 있으므로 이들 조합에 지원을 강화, 활성화시키고 축협은 분유비축수매등 수급조절역할에 중점을 되어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생활 西歐化경향 뚜렷
곡물줄고 우유 육류급증**

지난 25년간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곡물류 소비가 줄어든 대신 육류와 우유, 신선채소 수산물소비가 크게 늘어 서구화경향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65~89년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국민인당 곡물소비량은 지난 65년 1백88.8kg에서 89년에는 1백72kg으로 8.9%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육류는 4.6kg에서 21.6kg으로 3백69.6%, 우유는 1천3백9.5%, 수산물은 1백%씩

늘었다.

특히 곡물류 가운데 보리쌀은 65년의 36.8kg에서 89년엔 1.8kg으로 소비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감자와 잠곡의 소비도 11.1kg에서 5kg으로 절반이하로 줄었다.

반면에 소득탄성치가 높은 육류, 낙농제품 및 채소류, 과일류등의 신선식품의 소비량은 급증추세를 보였는데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 65년 1.4kg에서 89년 3.4kg으로 2.4배 증가했고 우유는 14배, 닭고기는 7.4배, 돼지고기는 4.1배, 계란은 4배씩 늘었다.

이와함께 풍·흉작에 따른 생산 변동이 심하고 장기보관이 어려운 청과류는 과실이 3.7배, 채소가 3.2배씩 소비량이 늘어 국민식생활의 고급화를 이끌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국민식생활의 서구화는 농축산물의 개방화와 함께 경제활동 및 소비주체인 성년인구(15~65세)의 증가등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食品研 분당에 새청사 마련

한국식품개발연구원(원장 朴正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자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

潤)은 11월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46-1번지에 새청사를 마련,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89년12월 착공, 2년여만에 완공된 새청사는 대지 3만5천평에 지하1층, 지상3층등 연건평 5천1백60평(연구실험실동 3천평, 특수시설동 5백70평, 지원동 1천5백90평)규모로 94억원(정부지원 84억, 자체조달 10억)이 투입됐다.

그동안 반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의 과학기술원등에 분산돼 업무를 수행하던 식품연은 이번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기능을 활성화시켜 농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낙후된 식품산업을 발전시킴으로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제고에 한몫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상습적 허위비방광고 철폐 공정거래위 파스퇴르 고발

파스퇴르유업 및 파스퇴르분유와 대표자崔명재씨가 경쟁사제품을 비방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5번째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파스퇴르및 대표崔씨가 공정거래위가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고발조치를 연속으로 당하면서도 허위 과장 비방광고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벌금형이 가볍기 때문으로 현행 공정거래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10월24일「로히트」라는 분유제품을 시판하면서 경쟁사제품의 제조기계를「동물사료용 또는 공업용인 탈지분유 제조기계」라

고 힐끗은 파스퇴르 분유와 대표崔명재씨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스퇴르 및 대표崔씨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4차례 검찰에 고발당해 이중 2차례는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계류중이며 나머지 2차례는 회사및 대표자가 각각 1백50만~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겨도 공정거래위가 취할수 있는 제재수단은 고발뿐이므로 법원이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않는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을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97년부터 모든 국교생에 給食 교육부 연도별 추진계획 마련

교육부는 현재 국민학교 학생의 8.2%만이 혜택을 입고 있는 학교급식률을 연차적으로 확대, 오는 97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국민학생들이 급식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1천2개교 39만2천명(8.2%)에게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92학년도부터는 3백3개교를 추가, 급식률을 17%로 높이고 ▲93학년도부터 96학년도까지 4년동안은 매년 1천2백50개교씩 급식대상 학교를 확대하며 ▲마지막 해인 97학년도에는 나머지 1천3백28개교에도 학교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의 7천6백33개교가 모두 학교급식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을 전면시행하

려면 급식 시설비만도 3천7백60억원이 소요되고 매년 운영비로 1천4백13억원, 식품비로 6천5백억원이 지출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 이를 위한 학교급식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고지 기업체나 동창회 및 독지가 등 지역사회로부터 기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규 손질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요 급식시설비 3천7백60억원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및 지역사회가 똑같이 부담케 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중에 관계법규를 개정, 오는 96년까지 소요재원의 3분1인 1천2백52억원을 민간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의식문화가 해결되고 비만 편식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여건을 고려, 앞으로는 학교급식을 양(量)위중에서 질(質)위주로 바뀌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급식을 어린시절부터 좋은 기본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산 교육의 場'으로 활용키로 하고 공동급식 과정을 통해 협동심, 책임감, 자율성, 질서의식등을 배양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부모들도 학교급식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간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아동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요리강습회 등도 수시로 개최,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